

‘설원 대축제’ 오늘 팡파르

동계체전 개막...열전 4일 돌입 광주 11위·전남 7위 수성 목표

‘눈과 얼음의 축제’ 제 88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21일 강원도 용평에서 개막식을 갖고 4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서울, 고양, 용평,경북에서 열리는 이번 동계체전에는 15개 시·도에서 총 3천293명이 참가 규모면에서 역대 최고다. 이번 동계체전은 빙상(스피드·쇼트트랙·피겨)과 스키(알파인·크로스 컨트리),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컬링 등 5개 정식 종목이 치러진다. 이번대회에 광주는 스키와 빙상, 컬링에 107명(선수 78명, 감독 15명, 코치 14명)의

선수단이 출전, 금, 동3개를 따내 종합점수 171점을 획득해 지난해와 같은 11위를 수성한다는 계획이다. 광주는 특히 문영화(성신여대)가 빙상(피겨)에서 여대 싱글D조에서 4연패에 도전하고, 차상찬(조선대)이 남대 싱글B조에서 역시 금메달에 도전한다. 김인배(상무고)는 남고 빙상(피겨)에서 은메달 확보가 유력하며 스키 크로스컨트리 남자일반부 류지웅·송연선·이성웅·최대웅(광주스키협회)과 빙상 쇼트트랙 남대부 3천m에서 이성훈(한국체대)이 최소 동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보여 당일 컨디션에 따라 은메달이나 금메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이스하키를 제외한 4개종목(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빙상)에 190명(선수 121명, 임원 28명, 본부임원 41명)이 참가하는 전남은 금1, 은2, 동2개를 따내 종합점수 223점을 획득해 지난해와 같은 7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은 엄유래(동신대)가 여대부 빙상 피겨 싱글D조에서 금메달이 유력하고, 스키 크로스컨트리 여자일반부 15km계주와 남자일반부 크로스컨트리40km계주에서 은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 컬링 남중 무안 망운중이 단체전 에서 동메달, 바이애슬론 여자일반부 21.5km계주 에서 장영화·권오봉·최미선조가 입상을 바라보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날아서 쏜다 20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열린 2007 SK핸드볼콘서트에서 하나은행 고경수가 한국체대 김성우의 수비를 앞에 두고 슛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성 맨유 이끌 유망주”

퍼거슨 감독 “향후 6~7년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맨유의 미래를 이끌 유망주 7명 가운데 한 명으로 박지성(26)을 꼽았다. 퍼거슨 감독은 20일 2006~2007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릴(프랑스)과 16강 1차전에 앞서 프랑스 랑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지성과 웨인 루니(22·잉글랜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2·포르투갈), 네만자 비디치(26·세르비아), 파트리스 에브라(26·프랑스), 대런 플래처(23·스코틀랜드), 존 오셔(26·아일랜드) 등 7명이 향후 6~7년 간 팀을 이끌 기대주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퍼거슨은 “30대 베테랑인 라이언 키스, 폴 스코츠, 게리 네빌이 언제까지 최고 수준에 있을 수 만은 없다. 우리가 하려는 일은 점점 노쇠화하는 팀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클럽에서 발전한 젊은 선수들은 모두 좋은 연령대에 있다. 이들이 있기에 많은 우승컵에 도전해볼 수 있다. 물론 유럽 클럽대항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한편 21일 오전 4시45분 프랑스 랑스의 스타드 펠릭스 불라르에서 맨유와 맞붙는 릴의 클로드 부엘 감독은 “승산이 50대 50이라고 말하긴 어렵겠지만 우리 팀에도 분명히 기회가 올 것”이라며 홈 경기에서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태환 자유형 200m도 출전한다

세계수영선수권 400m, 1,500m 이어

3월 호주 멜버른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있는 ‘마린보이’ 박태환(18·경기고)이 단거리인 자유형 200m에도 출전한다. 20일 박태환 후원사인 ‘스피도’에 따르면 호주 멜버른에서 전지훈련 중인 박태환과 박석기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자유형 400m와 1,500m 등 중·장거리 종목에 단거리로 분류되는 200m를 추가해 도전하기로 결정

했다. 스피도는 박태환의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신청서를 이날 대한수영연맹에 제출할 예정이며 연맹은 다른 선수의 신청서까지 취합한 뒤 최종 엔트리와 출전 종목을 정해 대회 조직위원회에 통보하게 된다. 도하아시아게임 이후 한 달 가량 운동을 쉬는 바람에 컨디션이 ‘딱’ 떨어졌던 박태환은 이번 대회에서는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주종목인 400m와 1,500m만 뛸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굳이 200m에 도전하는 이유는 미국의 ‘수영신동’ 마이클 펠프스(22)와 맞붙기 위해서다. 아테네올림픽 6관왕에 빛나는 펠프스는 최근 미국 미주리주 컬럼비아에서 열린 미주리그랑프리 수영대회 자유형 200m에서 1분46초47로 우승했다. 이는 박태환이 도하아시아게임에서 세웠던 1분47초12보다 0.25초 밖에 빠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만 하다. 세계기록은 은퇴한 이안 소프(호주)가 2001년 후쿠오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작성한 1분44초06.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1일(수)
▲NBA(LA클리퍼스-피닉스)(12:20·SBS스포츠)

- ▲대학장사씨름 최강전 소장급(14:00·MBC ESPN)
- ▲V-리그(흥국생명-도로공사)(14:10·KBS1), <현대캐피탈-LIG>(16:40·KBSN Sports), <대한항공-상무>(19:00·KBSN Sports)
- ▲프로농구(동부-삼성)(18:50·SBS스포츠), <KT&G-모비스>(18:50·Xports)
- 22일(목)
▲WGC 액센추어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첫째날(04:00·SBS스포츠)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전(바르셀로나-리버풀)(04:30·MBC ESPN)

G기탄출판

1 조선일보 (맛있는 공부) 팀장이 직접 쓴

등들의 비밀노트

2007년 입시정보
핵심 보강
개정판 출시!

평범한 우리 아이도 1등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책!
갈 것 다 차고, 고라시만 공부한 1등은 이 책에 등장하지 않는다.
더신 아무도 알려주지 않던 1등들의 진짜 공부법이 낱알이 수확됐다.
조선일보 (맛있는 공부) 편집팀이 직접 쓴 1등들의 9공개 학습 노하우!
이 책만 평범한 자녀를 위한 성적 올리기 비법이 가득하다.
부로만 읽지 말고, 자녀의 학습동기를 위해 선물하자!
* 전국 유명서점에서 할인판매중

누끼로 가려져 있는 공부방법을 확인하고 이 책은 자신만의 공부방법을 통해 학습 의욕을 높여 주는 아이부터 이 책 읽기의 필요성을 느끼는 학부모까지 모두에게 꼭 필요한 최고의 학습법! **최저가 1000원**

타인의 다양한 고민으로부터 벗어나! 이 책 덕분에 고민을 털어내고, 학습 의욕을 높여 주며, 자녀의 학습 동기를 높여 줄 수 있다. **공부법 9공개** 1등들의 비밀노트, 2공개

공부법 9공개에 담긴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녀 1등을 위해 공부법 9공개를 읽는다. 9공개란 1등들의 비밀노트 9공개 1등들의 비밀노트는, 과외에 의존하지 않고, 과외에 의존하지 않고, 과외에 의존하지 않는다. **독자 1000원**

특히 공부법 9공개 1등들의 비밀노트는, 과외에 의존하지 않고, 과외에 의존하지 않고, 과외에 의존하지 않는다. **독자 1000원**

gitan.co.kr

문의 : 02-586-1007(4)
Fax : 02-586-2337

일본, 중국, 대만, 태국에 판권 수출!
대형서점 어학부문 베스트셀러!

영어의 기초, 기적처럼 잡아라~!

영어공부 비밀 계획만 배우고, 시작도 못했다면
민트르한반 일고 단숨에 영어는 7개의 시리츠를 만나보세요!
아무리 위우도 정리되지 않던 문법이란 영문법, 영문법, 영문법!
바라다해봐, 영어의 기초가 한눈에 잡힙니다.
초, 중, 고부터 대학원, 직장인까지 꼭 필요한 영어비밀!
직접 한국서점 어학부문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찾아보세요.





G기탄출판
문의 : 02-586-1007(4)
Fax : 02-586-2337